

17. 원나라의 거찰(巨刹) 수정사(水精寺)³⁴⁾

◎ 뜻밖에도 발견한 김중광(金仲光) 명문(銘文) 기와

◎ 원나라 때 3대(大) 사찰(寺刹), 불교(佛教) 융성하여

제주도에는 중세(中世) 이전에 있었던 사찰(寺刹) 가운데 수정사(水精寺)를 비롯하여 원당사(元堂寺), 법화사(法華寺) 등을 3대 사찰로 일컫고 있지만 이 세 사찰 모두가 원나라 때의 창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기록상 창건연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정사라고 할 수 있다.

『탐라기년(耽羅紀年)』을 보면 “충렬왕(忠烈王) 26년(1300)에 원(元)이 도근천(都近川) 서쪽 언덕에 수정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이전에도 적은 규모의 절이나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찰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34) 『한라일보』 제96호 (1989. 08. 12).

불교(佛敎) 도입은 언제?

제주도에 언제 불교(佛敎)가 들어오고 언제 절이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전거가 없다. 몇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백제(百濟)나 신라(新羅)를 통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탐라(耽羅)는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보아도 5세기부터 백제와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미 백제는 불교를 도입해 있을 때였다.

이때 도입이 안 되었다면 신라 때 와서는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신라는 불교를 국책으로 권장했던 나라였고, 7세기부터는 탐라와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본다.

둘째는 당(唐)나라를 통한 도입 가능성이다. 661년에는 탐라의 사자가 당나라에 입조(入朝)하였고, 665년에는 당장(唐將) 유인궤(劉仁軌)의 인솔로 탐라의 사신이 신라·백제·왜(倭) 등 네 나라 사절과 더불어 당나라 태산(泰山)의 제사에 참석하고 있다. 그밖에 탐부라(耽孚羅)의 상선이 광둥(廣東)에 폭주한다는 기록과 또 제주도에 당포(唐浦)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나라와 탐라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고려를 거쳐 들어왔다는 견해다. 고려가 건국한 뒤 938년부터는 탐라가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번국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문화의 영향도 직접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음(淸陰)은 찾아 왔다가

특히 1034년(덕종 3) 부터는 불교의식인 팔관회(八關會)에 탐라 사신이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1058년(문종 12)에는 불사의 건립 기록이 나오기도 하여 이때는 이미 불교가 도입돼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원의 지배 이전에 제주도에 불교가 도입돼 있었던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신라나 고려 때처럼 일찍이 없던 큰 절이 세워지고 불교의 융성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의 시대였다고 믿어진다.

수정사 유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홍정표(洪貞杓)씨, 양중해(梁重海)



! 수정사지(水精寺址)에서 발견된 초석(礎石)! 홍평호 스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초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유물 가운데 하나다.

교수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조사하고 있다. 필자 자신도 몇 차례 이곳을 답사한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유적으로 보아서 도내에 있었던 절 가운데는 법화사와 함께 가장 큰 거찰(巨刹)이었다고 생각된다.

1975년도에 조사를 실시했던 양(梁)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1m 안팎의 초석만도 7기가 나왔으며 그밖에 대석·고려자기·기와 등 상당수가 발견되었고, 묻혀있는



수정사에서 발굴된 초석군(제주시 외도동) | 2014년 현재 외도동 소재 민가에 위치함.

것은 더욱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여 년 전 이 절터를 답사하다가 필자는 뜻밖에도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한 장 발견했다. 그것은 만호(萬戶) 김중광(金仲光)의 것이었다. 그는 고려 말에 제주만호로 두 번이나 도임했던 사람이다. 그 첫 번째는 1375년(우왕 1)이었고 다음은 1383년(우왕 9)에 재도임 했는데 약 2년씩 재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절이 창건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건연대로 알려진 1300년을 놓고 보면 이미 70~80년이 지난 뒤이므로 이때 중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부속 건물을 더 증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 명문기와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연

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안다.

『탐라지』와 그 밖의 기록을 보면 수정사는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존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모습은 창건 당시의 웅장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601년(선조 34)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제주도에 도착하던 날 그는 이 절에 들르고 있다. 이때의 상황을 그는 『남사록(南槎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근천에 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날이 어두웠으므로 여기서 묵으려고 하였다. 막상 이르고 보니 초가집이 몇 칸 있었는데 비바람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여기 사는 중들은 모두 계집과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더러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때의 수정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결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사찰이 얼마나 볼 일 없고 천대 받았는가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도 되겠다.

복원(復元)돼야 할 옛 절

이 퇴락했던 절 마저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던 이 절터에 다시 절이 들어선 것은 4·3 사건으로 산간에는 절을 지을 수가 없었던 1949년, 강동은(姜東銀) 스님과 임성옥(任成玉) 보살이 이곳에 용수사(龍水寺)를 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절은 산중의 암자만도 못한 초가집이었다.

지금은 그 뒤에 인수한 홍평호 스님과 김두진 보살이 관리하고 있다. 법당도 새로 보수하고 환경도 정비하여 절의 면모를 쇄신시켰으며 절 이름도 다시 수정사로 고쳐 놓았다.

그러나 고려 때의 그 웅장했던 절은 아니다. 최근에 법화사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 수정사도 하루 빨리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그 날의 면모를 재현시켜 놓아야 하리라고 본다.